

중국매체의 내러티브 뉴스 번역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참고소식〉 번역사례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강수정*

<目 次>

1. 서론: 연구의 배경
2. 역피라미드형 뉴스의 번역전략
3. 내러티브형 뉴스의 개념과 적용
4. 내러티브형 뉴스 텍스트 번역 사례와 유형
5. 결론

1. 서론: 연구의 배경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뉴스는 기자가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를 취재라는 행위를 거쳐 매체를 통해 문어 혹은 구어적 텍스트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간단히 이야기 하면 '보도행위'의 결과물¹⁾이다. 보도행위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진실성과 객관성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보도행위의 결과적 텍스트인 보도문 역시 화려한 수식어를 배제하고 핵심기능인 의미전달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결하게 쓰는 보도기사적 문체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특히 뉴스가 표상하는 객관성은 현실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미디어 종사자와 미디어 조직 나름의 특성에 따라 경험으로 형성된 프레임(Frame)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²⁾되는데, 특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중문학부 조교수

1) 김우룡, 『텔레비전 뉴스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13쪽.

2)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239쪽.

정 사건을 미디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은 뉴스가 제시한 틀에 의해 선택되고 특성화 되는 의미를 갖는다.

뉴스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텍스트적인 전형을 잘 갖추어 오고 있었다. 보도문은 5W1H³⁾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객관성을 담보해야하고, 무엇보다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작성되어 한다⁴⁾는 정형화된 원칙과 개념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역피라미드 방식의 보도기사 작성법은 뉴스 내용의 객관성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텍스트 구성 방식으로, 해당 뉴스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두의 문장이나 문단에 짧게 담아내는 리드(lead)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드를 서술하는 사실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는 독자들이 기사 전체를 읽지 않고도 뉴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한국 보도기사는 이러한 역피라미드 구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확산 속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주도적 채널로 소셜미디어가 부각되면서⁵⁾ 수용자들의 뉴스이용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⁶⁾ 수용자들은 놓칠 수 있었던 스토리를 알려주고, 다양한 소스에 쉽게 접근하며, 댓글과 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대중매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던 수용자들은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뉴스를 수동적으로 읽거나 시청하는 입장이었다면, 소셜미디어 시대의 수용자는 1차적으로 생산된 뉴스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새롭게 생산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수용자의 위상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 소비형태의 변화는 뉴스가 전달되는 텍스트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역피라미드 구조로 대표되는 표준화된 뉴스 전달 방식이 소셜미디어 상황에서

3)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 했는지 등 기사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여섯 가지 요소.

4) 김경희, 「뉴스소비의 변화와 뉴스의 진화」, 『언론정보연구』 49(2), 2012, 6쪽.

5) 연합뉴스, 「뉴스소비 SNS 확대」, 2017년 3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뉴스를 볼 때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1%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6) 한국언론재단,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6』, 서울, 한국언론재단, 2016.

는 그 효용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즉 역피라미드에서 보여주는 선형적이고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텍스트 구조가 소셜미디어의 비선형적 전개와 맞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기존의 뉴스전개 구조에서 탈피하여 좀 더 비구조화 된 이야기체의 뉴스 전개가 요구 되고 있다. 리드에 기사의 핵심을 요약하고 본문에서 사실을 서술하는 역피라미드 텍스트의 전형적 특징이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하고 재미없는 사실을 나열하여 결과적으로 읽을수록 흥미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⁷⁾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역피라미드 스타일이 뉴스의 객관성이라는 전통을 상징하지만, 새로운 매체환경에 적합한 글쓰기는 아니며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저널리즘에서 내러티브 형태의 기사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모티브로 삼아 사건을 이야기처럼 풀어가는 글쓰기를 말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좀 더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접근의 기사로 평가 받는다. 미국의 경우 신문기사의 20%가 내러티브 스타일의 기사쓰기를 따른다는 조사가 있으며⁸⁾ 지역일간지의 경우 본문뉴스의 50%이상이 내러티브형 기사에 할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한국은 2009년부터 중앙일보의 『중앙SUNDAY』, 조선일보의 『WHY?』 등이 스토리텔링 기사를 편집전략으로 삼으면서 내러티브 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다.¹⁰⁾

본 연구는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내러티브 방식의 뉴스들이 중국매체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고찰이다. 사실상 한국의 뉴스는 상당히 많은 경우 중국매체의 번역뉴스로 제공되고 있는데, 중국의 외신번역일간지인 [참고소식]의 경우 1993년 연간 9회에 불과했던 한국뉴스가 2007년에는 연간 169회로 늘어났으며¹¹⁾, 중국중앙방송(CCTV)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매일 1쪽지에서 6쪽지까지 한국뉴스를 번역하여 보도하고 있다.¹²⁾ 이렇게 늘어나는 번역뉴스에

7) 광민영, 『기사스타일이 독자의 흥미, 신뢰도, 기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 2쪽.

8) 안수찬, 「대중과 교감하는 길, 내러티브」, 『방송기자』, 2014, 19쪽.

9) 고영철,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 콘텐츠의 구성방식 비교분석」, 『언론과학연구』 15(1), 2015, 5-41쪽.

10) 박재영·이완수, 「역피라미드 구조와 내러티브 스타일에 대한 기자와 에디터의 인식」, 『한국언론학보』 52(6), 2008, 124쪽.

11) 이혜균, 『국가 간의 국제뉴스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년.

대한 연구는 모두 역피라미드 형태의 보도기사를 전제로 한다. 역피라미드 형태의 뉴스는 객관성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뉴스를 번역하는 핵심적 과제도 정보의 전달이 된다. 그러나 내러티브 뉴스의 글쓰기는 기존 뉴스의 전형성을 탈피한 스토리의 전개에 기반한 문학적 글쓰기에 가깝다. 따라서 객관적 정보의 전달과 문학적 스토리와 감성의 전달이 혼용된다는 면에서 내러티브뉴스의 번역은 기존 역피라미드형 뉴스의 번역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역피라미드형 뉴스 번역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닌 내러티브 뉴스의 번역이 중국매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내러티브 뉴스 번역의 형태와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번역뉴스에서 내러티브 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실증적 사례를 통하여 한중 내러티브 뉴스번역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역피라미드형 뉴스의 번역전략

내러티브 형태의 뉴스번역 분석에 앞서, 그 동안 역피라미드 형태의 뉴스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문기사는 정해진 마감시간과 한정된 지면의 제약 때문에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짧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독자들이 기사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단순명료하게 기사문의 제일 앞쪽에 배치하는데 이것을 리드(lead)라 한다. 리드는 본문에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본문은 취재된 정보의 6하 원칙에 따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된다.

독자들은 이 역피라미드 구조로 된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만 읽으면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의 사용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12) 강수정, 「방송뉴스 번역양상에 관한연구」, 『통번역학연구』 17(1), 2013, 3쪽.

기자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기사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공간압박에 시달리는 편집자는 기자와 상의 없이도 기사의 말미를 잘라낼 수 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기사는 정보나열이 명쾌하고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정보습득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역피라미드 구조는 매체와 독자 모두에게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¹³⁾

한국 매체의 보도문은 이러한 역피라미드 형의 기사가 대다수이고, 중국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원칙으로 기사작성이 이루어진다. 특히 중국에서는 다양한 기사쓰기 형식이 적용되고 있는 서구의 뉴스를 번역할 때,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웨이(張偉)¹⁴⁾의 경우 '뉴스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뉴스가치가 높은 내용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역피라미드에 맞지 않는 국제뉴스는 원문의 단락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번역되는 뉴스는 보도문의 특성에 맞는 역피라미드 방식의 기사 틀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역피라미드 뉴스번역을 설명하는 가장 특징적인 논의는 뉴스를 정보 전달 텍스트로 분류하는 것이다. 뉴스번역이 원문의 독자들이 느끼는 감동을 번역문 독자들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하는 문학번역이나 원문의 실용적 요구가 번역문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게 하는 실용번역 등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지니는 장르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번역전략을 구사한다. 라이스(Katharina Reiss)와 페르메르(Hans J. Vermeer)¹⁵⁾는 모든 텍스트는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정보적(information), 표현적(expressive), 작용적(operative) 텍스트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번역 방법을 달리 할 것을 제시하였다. 뉴스 텍스트의 경우 원문의 내용과 객관적 사실이 논리적으로 잘 번역되어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적 텍스트이므로 평이한 산문체의 번역을 추천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소(文化素)는 필요에 따라 부가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

13) 박재영·이완수, 위의 논문, 126쪽.

14) 张伟, 「国际新闻编译策略的实际应用」, 『今日南国』, 2009, 114쪽.

15) Katharina Reiss & Hans J. Vermeer, 정혜연 외 옮김, 『일반통번역이론의 기초』,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다. 자원보(賈文波)¹⁶⁾는 문학과 같은 표현적 텍스트들은 원문의 개성을 드러내는 ‘이국화’ 번역을 해야 하지만, 정보적 텍스트인 뉴스는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고 언어형식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자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자국화 번역할 것을 주장한다. 국내에서 이은숙¹⁷⁾은 슈넬혼비(Snell-Hornby)의 텍스트 분류에 따라 번역뉴스가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기능과 정보적 기능(Informative)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확성과 객관성에 더불어 소통적 언어기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뉴스번역에서 원문 기사의 형식적 방식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보다, 그 내용이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것이다. 뉴스를 정보형 텍스트로 분류하여 번역하는 것은 내용전달을 위해서 원문의 언어형식을 유지하기보다 표현을 자국화 하여 가독성을 높이되, 뉴스라는 텍스트 구조의 핵심인 역피라미드형 보도문이 지니는 텍스트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번역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역피라미드 뉴스를 정보성 텍스트로 규정하는 것이 역피라미드 번역의 큰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실행적 접근법은 기능주의 뉴스번역이다. 이 방법은 주로 중국의 번역뉴스에서 채택하는 번역전략이다. 중국뉴스를 구독하거나 시청하는 수용자들이 계층적·지역적으로 차이가 큰 관계로 수용자들의 뉴스 이해도를 높기 위해 짧고 간결한 문장의 사용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다. 그런데 영미권을 비롯한 해외 뉴스들은 뉴스문 안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번역과정에서 문장길이의 차이로 인한 정보 불일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¹⁸⁾ 이는 원문의 뉴스와 중국어의 언어구조가 다른데서 오는 문제인데, 중국매체들은 번역과정에서 원문과의 언어구조 차이를 극복하고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기사를 재구성하는 2단계의 전개방식¹⁹⁾을 따른다.

16) 賈文波, 「文本类型的翻译策略导向—异化, 归化讨论后的思考」, 『上海科技翻译』, 2004年 第3期, 6-11쪽.

17) 이은숙, 「전문번역전략에 대한 연구-TV뉴스 번역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0, 2011, 199-218쪽.

18) 吕宁, 「新闻编译中的“选择”—以《参考消息》的一篇报道为例」, 『新闻记者』 2006(10), 58-59쪽.

우선 원문을 분석하여 번역문을 헤드라인, 리드, 그리고 각 문단별로 본문을 나누어서 번역자가 원문의 정보가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1단계이다. 원문을 역피라미드 구조에 따라 각 부분(헤드라인-리드-본문)을 구분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외신이 중국뉴스보다 긴 편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원문에 대한 문장의 추가, 삭제, 재구성을 통해 역피라미드 구조로 배열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2단계로는 번역자가 선택한 단락을 번역하면서 중국어의 배열 습관, 혹은 위·아래 문장 연결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 삭제, 교체, 귀납 등의 방법으로 번역한다. 결국 원문을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해체 혹은 구분하여 각 부분을 중국뉴스의 관습 혹은 가독성을 위해 재구성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구나 역피라미드 기사 구조의 핵심인 헤드라인과 리드는 중국어와 외국어의 차이를 독특하게 반영하는 부분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되는 일은 드물어서 대부분이 조정되거나 별개의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어 진다. 헤드라인의 경우 중국어는 한자 자체가 가지는 간결함과 글자마다 내포하는 뜻이 풍부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보다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뉴스의 헤드라인은 한국에 비해 구체적이며 정보량이 많다.²⁰⁾ 한국뉴스가 중국뉴스로 번역되면서 헤드라인이 그대로 직역된 아래의 사례²¹⁾를 살펴보면, 한국뉴스에 비해 중국의 헤드라인이 보다 적은 정보량을 보여주면서 문자가 차지하는 여백이 많이 남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 직역 사례〉

연합뉴스: 총리실 '상하이 스캔들' 스파이 사건 아니다
참고소식: 韓方澄清“上海門”不涉間諜案

조선일보: 美와 동맹 약해진 日, 中·러 강공에 '찢찢'
참고소식: 日美同盟松散 日本又臨中俄“強攻”

19) 张伟, 「国际新闻编译策略的实际应用」, 『今日南国』, 2009, 133, 142-144쪽.

20) 刘其中, 『新闻翻译教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126쪽.

21) 姜수정, 「중국뉴스매체의 한국뉴스 번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5권, 2011, 9쪽.

헤드라인에 대한 공간적 압박으로 인해 한국뉴스의 헤드라인이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느낌이라면 중국의 헤드라인은 보다 많은 정보량으로 본문 전체의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길게 서술된다. 역피라미드 기사의 편역에서 헤드라인은 중국매체의 언어적 관습에 적합하도록 번역과정에서 수정된다.

반면 리드(lead)의 경우 한국이나 외국매체에 비해서 중국뉴스는 좀 더 요약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뉴스의 리드는 본문형 리드, 질문형 리드, 나열형 리드, 인용 리드, 고발형 리드 등 다양한 구조를 활용²²⁾하여 좀 더 자유롭게 뉴스가 주목을 끌 수 있도록 표현되는 반면, 중국은 역피라미드가 표상하는 객관성 담보를 위해 보다 압축적이고 간결한 요약형 리드가 요구된다.

〈리드의 번역사례: 설명형을 요약형으로 변경〉

ST)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집이 있어도 대출금 때문에 빚에 시달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57만가구. 또 이들의 빚은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TT) 受到經濟不景气的影響，韓國樓市持續低迷。据KBS報道，在韓國背負着沉重房貸的房奴的數量正在增加。(불경기의 영향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주택 대출금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KBS의 보도입니다)

중국뉴스에서 리드는 문장의 표현적 기교와 특성을 배제한 채 보도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잘 드러나 보이는, 혹은 뉴스쓰기 규정에 적합한 글쓰기가 권장된다.²³⁾ 따라서 한국뉴스가 자유로운 리드 형태를 지닌다면, 중국뉴스는 좀 더 형식적인 리드를 요구하게 되어, 역피라미드 방식에서 가독성이 높은 번역을 위해서 리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역피라미드 스타일은 신문과 매체의 역사적 과정에서 뉴스 편집과정을 용이하게 해주며 뉴스 조직이 편집을 통해 뉴스의 제작과 전달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왔다. 문제는 사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 사안을 역피라미드 구조에 어떻

22) 이재경·김학희, 『방송보도』, 서울, 나무와 숲, 2008, 109쪽.

23) 周围红, 张凤辉, 「电视新闻语言探析」, 『新闻知识』, 2009(3), 76-78쪽.

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데 있다. 특히 번역과정에서 역피라미드 구조에 맞게끔 구성하다 보면 각 언어권에 맞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재구성하면서 원문이 필연적으로 변형되게 되는데,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헤드라인과 리드의 변경을 주요 번역전략으로 볼 수 있다.

뉴스는 번역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어권의 언어습관에 적합하도록 조정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화 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원문의 변형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뉴스가 번역되는 과정에는 단순한 언어전환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데, 국제뉴스의 '집합적 원저자성의 원칙'²⁴⁾과 같은 뉴스제작시스템의 차이, 또는 국제뉴스가 반영하는 국가적 이익 차원 등의 조직적, 사회적 조건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객관성, 공정성, 현실성과 같은 그 사회에 속한 매체집단의 생각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역피라미드 방식으로의 번역은 한 사회에 투영되는 뉴스구조가 지니는 특성의 반영이고, 뉴스번역은 그러한 특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3. 내러티브형 뉴스의 개념과 적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뉴스번역에 관한 논의들은 대개 역피라미드형 뉴스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역피라미드 구조의 뉴스가 매체와 기자, 독자 모두에게 기사의 인지와 이해과정에서 경제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지만, 최근 신문매체의 위기 과정에서 저널리즘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러티브 형태의 기사가 부각되었다. 미국에서는 2001년 하버드대학 니만재단 프로젝트(Nieman Program on Journalism)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발간되면서

24)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노승엽 외 역, 『글로벌 뉴스와 번역』,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9년 116쪽. 국제뉴스는 뉴스 제작과정에서 개인기자의 작업 보다 번역자-기자-에디터가 상호작용하는 집단적 결정과 연계된 작업일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원저자가 한명의 개인이 아니고 그 책임도 개인이 아닌 조직에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²⁵⁾,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매체 등에서 소위 '내러티브 리포트' 시리즈의 시작과 동시에 내러티브 기사쓰기가 이어져오고 있다.²⁶⁾

역피라미드 기사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전통적인 뉴스쓰기를 표방하는 이 방식이 편집자의 편의성에 충실하고 독자에게는 대단히 불친절하며, 읽는 재미를 반감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으로 모아진다. 기사의 앞부분인 리드에 기사의 핵심을 요약해 버리니, 본문을 읽을수록 덜 중요하고 재미없는 사실만이 나열됨으로 독자들은 읽을수록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²⁷⁾ 때문에 신문기사들의 유사성, 천편일률성 등을 불러옴으로써 독자가 이탈하고 신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²⁸⁾ 이에 덧붙여서 소셜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역피라미드 방식의 뉴스 읽기가 헤드라인과 리드 중심으로 지나치게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내러티브형 기사는 인식의 흐름과 같이 연대기적으로 서술됨으로, 소셜미디어 세대들에게 좀 더 익숙한 읽기를 선사한다는 특성도 들 수 있다. 결국 역피라미드 기사의 경제성이 시대 변화에 따른 적응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내러티브 뉴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내러티브는 원래 이야기의 전개를 의미한다.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방식으로는 주로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에 표현된 경험들이 줄거리의 기초가 되어 문학적으로 표현된다.²⁹⁾ 따라서 내러티브는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문어적·구어적 텍스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가 서술되고, 사람의 의식흐름과 유사한 시간 순으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탐색된다는 면에서 기존의 역피라미드 방식의 뉴스가 제시하는 사건중심의 글쓰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내러티브 스타일의 기사가 '인물'을 근간으로 하므로 '정보(의 중요도)'를 근간으로 하는 역피라미

25) 안수찬, 위의 글, 원래 역피라미드 이외의 뉴스인 논픽션, 사실주의 문학, 피쳐 기사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사 개념을 니먼 재단이 내러티브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정돈했다.

26) 박재영·이완수, 위의 논문, 124쪽.

27) 박민영, 위의 논문, 2쪽.

28) 안수찬, 위의 글, 17쪽.

29) John W. Creswell,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5, 90-91쪽.

드 구조와 다르게 서술되는 것이다. 특히 역피라미드 구조는 기사가 전개되는 방식이 오랜 시간을 거쳐 관습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지만, 내러티브 스타일은 이야기의 종류만큼이나 무정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사를 요약해서 글의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리드(lead)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체로 시간 순으로 쓰면서 현장감을 높일 수 있다. 박재영과 이완수의 연구³⁰⁾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자들은 내러티브 스타일이 문학의 이야기 또는 소설의 형식을 빌려와 실재감을 높인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모호한 개념 전달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전달에 효과적인 문체이다. 내러티브는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기사의 방향을 끌고 가기보다는 전개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 박재영·이완수(2008)의 인터뷰 中

중국에서도 내러티브 스타일의 기사가 이야기 전개나 소설쓰기의 형식에서 차용되었다는 측면에서 내러티브 뉴스를 ‘뉴스스토리(新聞故事)’, ‘스토리텔링(講故事)’이라 정의하면서 이러한 기사들은 독자들의 감성적 소구에 유용하고, 독자가 기사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 등, 글을 읽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기도 한다.³¹⁾

이야기 중심의 기사쓰기는 기존의 피처(Feature)라고 불리는 기획기사에 잘 나타난다. 피처는 시의성보다는 기획성의 기사로 일반기사보다 텍스트가 길고 내용의 심도도 깊다. 기자들은 피처를 쓰면서 인물을 설정하고 감각적 표현과 같은 소설적 요소를 자주 가미한다. 그렇다면 내러티브 뉴스는 기존의 기획 기사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안수찬에 따르면³²⁾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서사구조, 즉 플롯이다. 한국의 피처기사는 보통

30) 박재영·이완수, 위의 논문, 128쪽.

31) 王士宇, 『写新闻与讲故事』, 『新闻与写作』, 2009(10), 88-90쪽.

32) 안수찬, 『스트레이트를 넘어 내러티브로: 한국형 이야기 기사 쓰기』, 한국언론재단, 2007, 33쪽.

묘사에만 주력한다. 특정인물 공간 사건 등의 세부 사실을 설명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야기 기사는 이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지금 이곳의 이 사람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를 살핀다. 이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와 관련 맺은 다른 사람을 본다. 이를 통해 사람 또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이를 기승전결의 점중 구조에 온전히 담는다.

내러티브라 할지라도 뉴스의 형태를 통한 기사작성의 원칙은 존재한다. 장문의 소설이 아닌 뉴스 보도문이라는 측면에서 형식화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니먼 프로젝트를 제창한 Mark Kramer에 따르면³³⁾ 내러티브 기사들은 묘사를 통해서 독자를 특수한 장면으로 이끌어야 하고, 역피라미드에서 인물이 시민으로 간주되는 것과 비교해서 내러티브에서 인물은 연극 속 인물에 비유되고, 반드시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되어야 하며, 최대한 기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게끔 관점을 숨겨서 독자는 기자가 서술한 묘사를 따라 장면과 역할로 전이되어 가서 결국 이 글이 도달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형식화 사례로 거론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델³⁴⁾에서는 우선, 기사의 서두가 주제를 암시하거나 주제로의 반전에 효과적인 일화나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부분이 리드를 교체하는 리드인 셈이다. 그리고 주제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문장을 제시하고, 스토리라인을 소개하고, 이야기의 정보와 단서를 줄 듯 말 듯 애태우는 장치를 곳곳에 배치하고, 주제의 세부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며, 처음에 소개한 일화나 장면으로 회기 하는 등의 6가지 서술전략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형식의 논의들도 내러티브 기사쓰기 방식에 기반하여 사건의 전개를 드러냄으로써 이야기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뉴스를 통해 사건이 아닌 인물을 부각시켜 서술이 아닌 묘사를 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주력³⁵⁾하는데, 독자들은 기사를 읽지 않고 머릿속에서 인물과 사건을 재현해 볼 수 있게 된다.

33) 王士宇, 「写新闻与讲故事」, 『新闻与写作』, 2009(10), 88-90쪽.

34) 박재영·이완수, 위의 논문, 127쪽.

35) 안수찬, 위의 책, 29-31쪽.

아래는 2017년 8월초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이다. 고등학교 교사의 시험조작과 관련된 사회부 기사를, 역피라미드 방식의 속보형 기사는 8월 1일 인터넷으로 올리고, 이를 내러티브로 재구성한 기사는 지면에 다음날 게재한 것으로 양 기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8월 1일자 역피라미드 기사: 온라인 게재〉

대구 시내 한 공립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수십 명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이에 대한 조사와 징계에 나섰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중학교 국어 담당 A교사는 학교 기말고사 국어 시험이 끝난 뒤 자기가 수업을 맡은 1학년 학생 OMR 답안 50건을 직접 고쳤다.

A교사는 자신이 수업에서 잘못 가르쳐 학생들이 틀린 답을 체크했다며 이를 수정하다가 나중에 다른 교사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한 문항은 총 2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A교사가 고친 답안 50건 중 1개 문항의 경우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개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기존에 체크한 답안을 그대로 반영해 오답 처리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우선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하고, 다른 국어 담당 교사 2명에게는 문항 오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는 자신한테 배운 대로 답을 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답안을 고쳤다고 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A 교사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일자 내러티브형 기사: 지면 게재〉

대구의 한 공립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달 5일 1학기 국어 기말고사를 치렀다. 시험 문제는 국어 교사 3명이 공동 출제했다. 1학년 12개 반 중 4개 반을 담당하는 A교사는 시험 감독을 하는 도중 문법을 포함한 2개 문항에서 자신이 잘못 가르친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틀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시험 직후 4개 학급 학생 120여 명 중 50명의 국어 과목 OMR 카드 답안지를 몰래 빼내 2개 문항을 수정테이프로 고쳤다. 자신이 수업 때 언급했던 내용을 골랐던 학생(8번 문제 43명, 24번 문제 7명)들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성적 평가 교사가 답안지를

확인하던 중 특정 문항에만 수정 테이프가 칠해져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과 시 교육청 감사팀은 8번 문제엔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A씨가 답을 수정한 학생 43명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답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문법과 관련된 24번 문제의 경우, A씨가 답을 고쳐준 7명의 학생이 당초 표기한 대로 오답 처리했다.

A씨는 학교 측에 “내 잘못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낮아지는 피해를 볼까 봐 답안지를 수정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학교 측은 A씨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하고, A씨와 함께 문제를 출제한 다른 국어 교사 두 명에게는 문항 오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답안지를 수정한 것은 특정 학생의 성적을 올려 주려고 하거나 조직적으로 벌인 행동은 아니지만 교육계 4대 비리 중 하나인 성적 조작에 해당한다”면서 1일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강등이 있다.

두 기사 모두 같은 내용을 뉴스화 한 것이다. 역피라미드 형식은 ‘교사가 답안지를 고쳤다’는 사건에 중심을 두고 리드에서 사건 전반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시하고 본문에서 상세경위와 인용 등을 기술했다. 반면 내러티브 형식의 기사는 사건 자체 보다 당일 ‘A씨’가 시험감독을 시작하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A씨’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재 서술했다. 여기에서는 리드만으로는 사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리드는 단순하게 장면묘사를 통한 글의 시작에 불과하며 ‘A씨’의 시간 순에 따른 행적에 초점이 가 있어서 사건의 전모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일상에 숨겨진 내용과 맥락을 통해 독자들은 A씨의 심리상태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뉴스를 작성하다는 것은 진실을 보도한다기보다,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가깝다. 뉴스를 짜여진 틀에서 들어내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원인과 결과를 시간 순으로 서술 혹은 묘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뉴스를 스토리텔링 혹은 내러티브 논픽션이나 문학적 저널리즘이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사건의 전달이라는 역피라미드 기사의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뉴스보도는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재현한다는 신화적 믿음 속에서,

오랫동안 뉴스쓰기와 문학적 글쓰기 간에는 명확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른 뉴스 수용의 변화로 등장한 내러티브 뉴스는 허구라는 소재가 사실로 대체될 뿐, 문학적 글쓰기를 뉴스가 차용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역피라미드 뉴스가 텍스트 유형(Text type)분류에 따라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형 텍스트라면, 내러티브 뉴스는 픽션(fiction)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되는 표현적 텍스트에 가깝다. 따라서 내러티브 뉴스를 번역한다는 것은 문학적 표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와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양자적 문제로, 기존의 뉴스 번역과는 다른 번역행위가 요구된다.

4. 내러티브형 뉴스 텍스트 번역 사례와 유형

본 연구는 오늘날 제기되는 내러티브 뉴스 현상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러티브 뉴스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으로 외신뉴스를 번역해 보도하는 중국매체인 [참고소식(参考消息)]에서 내러티브 뉴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역피라미드 방식의 뉴스번역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참고소식]은 중국의 국가통신사인 신화통신사 산하의 참고소식보사(参考消息报社)가 편집·발간하는 일간지로 1931년 11월 7일 창간되어 약 8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외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서적의 형태로 중국 공산당 고위층 내부에서만 공개되는 간행물이었다가 1957년 일간지로 개편되어 전국의 당간부에게 배포되었고 1985년 전국민에게 개방되면서 현재 하루 발행부수가 340만부에 달한다.³⁶⁾ [참고소식]은 중국대륙에서 합법적으로 직접 외신을 게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신문으로, 중국내 모든 일간지는 참고소식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외신을 간접 게재할 수 있다.³⁷⁾ 따라서 중국매체의 내러티브 뉴스번역 현상을 고찰하기에 충

36) 참고소식에 관한 바이두(百度, 중국최대검색엔진) 백과사전의 설명.

37) 각 매체는 소속 특파원이나 주재기자를 통해서 기사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참고소식]의 번역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하게 된다. [참고소식]에서는 중국내 많은 매체들에 외신뉴스를

분한 연구대상이라 하겠다. 종이매체로만 제공하던 외신뉴스를 2012년부터는 국제뉴스 전문 사이트인 [참고소식] 공식사이트(www.cankaoxiaoxi.com)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번역뉴스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을 위해서 2012년에는 소후닷컴(www.sohu.com), 2013년에는 위챗(SNS, 중국의 카카오톡에 해당)을 통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소식]에서 내러티브 뉴스가 번역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러티브 뉴스의 특성에 따라 인물이 중심이 되는 기사, 연대기적으로 서술된 내러티브의 방식을 따르는 기사 등을 기준으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매체의 보도를 번역한 뉴스 총 142개를 수집하여, 이중 내러티브 뉴스에 해당하는 3건을 추출, 그 유형을 파악하였다.

ST)연합뉴스 5월 26일자 원문 - TT)참고소식 5월 27일자 번역 3년간 가라앉아 있던 전화기엔 '애타던 가족의 흔적만': 연합뉴스 원문
ST)중앙일보 7월 3일자 원문 - TT)참고소식 7월 5일자 번역 머니보다 중한게 뭐니? 중국 무대 택한 김연경: 중앙일보 원문
ST)중앙일보 7월 23일자 원문 - TT)참고소식 7월 25일자 번역 미 의회 증인 나서고 2억 6천만원 기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세상 떠나시다

내러티브 뉴스현상이 뉴스기사의 주류 현상은 아닌 관계로 많은 사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신문기사의 20% 정도가 내러티브 형식을 따른다고 하지만³⁸⁾, 한국에서는 역피라미드 방식의 기사가 대다수이고, 몇 가지 내러티브 뉴스에 대한 시도가 있을 뿐 그 논의가 진행되고 실험되는 수준이다.³⁹⁾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뉴스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관련된 통계나

공급하기 위해서 수십여 개 언어의 번역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이른바 '고급번역사'라는 호칭이 붙은 번역사 100여명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영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총 7개 언어의 번역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소수언어 수십종의 경우는 번역사를 두고 있다.

38) 안수찬, 위의 글, 2014, 16쪽.

39) 박재영·이완수(2007a)에 따르면, 국내 10대 종합일간지의 1면기사 조사 결과 역피라미드 구조가 97.5%, 기획기사의 경우 대다수(81%)가 역피라미드 구조이나 미국 기획기사에서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전무했다.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 번역뉴스 현상에 대한 고찰은 중국매체의 뉴스번역이라는 행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할 탐색적 과제이다. 또한 그 특성이 역피라미드 방식과는 다른 표현적 텍스트에 대한 중국매체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의 숫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아래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1) 헤드라인 표현의 객관화

역피라미드 형태의 헤드라인 번역에서 확인한 것처럼 중국뉴스의 헤드라인은 한국뉴스에 비해 공간적 여유가 있어 본문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헤드라인에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한국의 헤드라인이 함축적이고 추상적이라면 중국은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 뉴스의 번역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내러티브 뉴스 원문 헤드라인은 내러티브 본문을 반영하듯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서 좀 더 해학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되는 형태가 많았으나 [참고소식]에서 이들 헤드라인의 번역은 좀 더 객관적이고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헤드라인 사례1〉

ST) 중앙일보 7월 3일자

- 머니보다 중한게 뭐니? 중국 무대 택한 김연경

TT) 참고소식 7월 5일자

- 韓國“排球女王”爲何甘愿降薪赴華打球

(한국 “배구여왕”, 어째서 연봉 낮춰서 중국으로 가는가?)

〈헤드라인 사례2〉

ST) 중앙일보 7월 23일자

- 미 의회 증인 나서고 2억6천만원 기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세상을 떠나시다

TT) 참고소식 7월 25일자

- 韓國九旬“慰安婦”受害者去世
(한국 9순의 ‘위안부’ 피해자 세상을 떠나다.)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조망하는 내러티브의 특성이 반영된 ST⁴⁰⁾ 헤드라인은 역피라미드 방식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유사어 반복을 통한 유머코드를 살려 독자들의 주목을 끌거나,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근조하듯 주요 업적을 넣어 길게 설명하는 등 특별한 형식과 제한 없이 헤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번역된 TT의 헤드라인은 인물의 이야기가 반영되기보다 해당 인물과 관련해 발생한 중국이적, 사망 등 사건의 중요한 형태가 반영된 헤드라인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내러티브 뉴스에서 자유롭게 제시된 원문의 표현적 텍스트를 평이하고 객관화된 산문체로 변경한 것으로, 감성이나 이야기의 전달보다는 객관적 사건과 정보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하겠다.

2) 리드 추가를 통한 역피라미드 형태의 재구성

리드(lead)는 역피라미드 형태의 뉴스에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내러티브 형태의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참고소식]에서는 중앙일보 7월 23일자에 게재된 김군자 할머니 사망 소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시작한다.

〈리드 추가 사례 1〉

ST) 중앙일보 7월 23일자

“깃뺀 삶이 불쌍하고 억울하다. 살아있는 동안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고 싶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김군자(사진) 할머니가 평소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그는 이 같은 평생 소망을 가슴에 묻은 채 23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할머니는 전날(22일)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탔지만... (하략)

TT) 참고소식 7월 25일자

核心提示：韩媒报道称，日军“慰安妇”被害者金君子老人于7月23日上午8

40) Source Text, 원문.

时04分在京畿道广州市的分享之家去世。至此，在韩国政府登记备案的238名“慰安妇”被害者中，仅有37人在世。

据韩国《中央日报》网站7月24日报道，金奶奶直到前一天（22日）还像平时一样，并无什么异常。

핵심제시: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노인이 7월 23일 오전 8시 4분,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서 돌아가셨다. 이로써 지금까지 한국정부에 등록된 238명의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37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한국 ‘중앙일보’ 인터넷 페이지의 7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전날(22일)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한다.... (하락)

ST인 중앙일보의 내러티브 뉴스에서는 할머니의 평소 소망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할머니의 삶의 궤적을 따라 이야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참고소식]의 TT에서는 ‘핵심제시(核心提示)’라는 리드를 대체할 내용을 추가한 번역이 이루어졌다. 다른 내러티브 기사의 번역과 달리 ‘위안부’ 피해자 사망 소식은 비교적 원문 그대로 번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맥락을 설명하는 리드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넣은 것이다. 사건의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리드로 대체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뉴스 보도문의 기사형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즉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번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인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번역 행위로 아래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드 추가 사례2〉

ST) 연합뉴스 5월 26일자

‘해경이 경비정 투입했는데 OO야 죽으면 안 돼. 꼭 살아있어야 돼’ 세월호에서 복원한 휴대전화에는 가슴 졸이는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의 주인은 참사로 희생된 295명 가운데 단원고 교사인 A씨... (하락)

TT) 참고소식 5월 27일자

2014년4월16日, 韩国“世越”号沉没, 至今沉船事件调查工作仍在进行中. 船体调查委员会26日公布遗留下来的2支手机及其相关信息, 盼通过得知手机最后的位置, 推断进水时间及判断沉船原因.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한국의 ‘세월호’ 침몰은 지금까지도 조사작

업이 진행 중이다. 선체조사위원회가 26일 남겨진 2개의 핸드폰과 그와 관련된 소식을 발표했다.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를 통해 침몰된 시간과 침몰원인 등을 추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락)...

ST는 문자메시지를 바로 소개함으로써 맥락을 생략하고 스토리의 전개로 이어지나, TT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선체조사위원회를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리드를 삽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월호와 관련된 맥락이 파악되지 않는 번역어권 독자를 위해 배경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내러티브 뉴스는 사실을 근거로 문학적 표현을 빌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맥락과 배경이 삭제된 채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번역의 상황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맥락이 없을 경우 본문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진다. 세월호 보도의 리드는 이러한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리드를 추가한 번역의 사례이다. 동시에 역피라미드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리드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내러티브 뉴스를 번역할 경우 리드의 추가를 예측할 수 있다.

3) 문학적 표현의 변경과 삭제

역피라미드 방식의 기사쓰기가 다른 장르와 차별적인 것은 정보를 나열하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압축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통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달 매개인 역피라미드 방식의 '장르적 문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다.⁴¹⁾ 중국매체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참고소식]에서 내러티브 ST에 대한 번역작업은 앞서의 리드 추가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에서도 문학적·표현적 텍스트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 형태의 기사를 잘 짜여진 역피라미드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ST) 중앙일보 7월 23일자

김 할머니는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윈 그는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중국 지린성(吉林

41) 안수찬, 위의 책, 39쪽.

城) 훈춘(珙春)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당시 17세의 꽃 같은 나이였다... (중략)... 강제동원 기간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TT) 참고소식 7월 25일자

报道称, 金奶奶1926年出生于江原道平昌, 是家中三个女儿中的长女。自幼丧父丧母的她在第二次世界大战, 即1942年的时候被强制带到了中国吉林省珙春慰安所, 那时候她只有17岁。... (中略)... 她还多次选择自杀。

报道称, 直到光复之后, 她才重新踏上了日夜思念的故乡。(以下省略)

(보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윈 그는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珙春)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당시 겨우 17살이었다... (중략)... 강제동원 기간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중략)... 보도에 따르면, 광복이 되고 난 후에야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하략)...)

김군자 할머니 기사의 본문은 [참고소식]에서 비교적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전달하고 있다. 다만 기사의 앞부분에 리드를 추가하면서 내러티브 방식을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재구성하였고, 위의 사례에서처럼 함축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수정하였다. 역피라미드 방식의 글쓰기와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중앙일보 보도임을 강조하는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출처를 리드뿐만 아니라 본문의 문단 서두마다 모두 삽입하여 이 기사가 뉴스로 보도된 객관적인 기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감성적인 내러티브 기사를 객관화 시키는 [참고소식]만의 ‘장르문법’을 구사하고 있다. 전체 문장에 손대지 않고,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고, 보도문임을 강조함으로써 원문이 지닌 내러티브적 속성의 감성적이고 표현적인 문체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의 속성을 정보형(information)으로 바꾸어낸 것이다.

4) [참고소식]의 특성에 따른 번역전략

내러티브는 인간의 일을 기사에 옮기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장 강력한 말글 형태인 이야기 또는 문학을 차용하여 전달하게 되는데⁴²⁾, 이 과정에서 내러티브를 통해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구에서 제시된 3건의 내러티브

원문 기사들은 위안부 할머니, 김연경 선수, 세월호 휴대폰 등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 안에서 해당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다.

사례로 살펴본 바로는 중국매체인 [참고소식]에서 내러티브 형태의 뉴스들은 모두 역피라미드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리드 없이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던 기사에 리드를 추가하여 맥락을 설명하거나, 보도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어서 표현적 텍스트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중국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의 사용을 강조하는데, 문장의 형태에서 기원문이나 감탄문, 의문문 등이 객관적 정보의 전달에 부적절하다고 보아 뉴스에서 평서문의 사용을 권장한다.⁴³⁾ 사실의 묘사과정에서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어휘를 배제하고 중성적인 문장형태를 취해야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뉴스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스문의 객관성에 대한 입장은 역피라미드 스타일의 기사문이 제시하는 뉴스의 객관성에 대한 반영 지점과 일치한다.⁴⁴⁾

따라서 중국매체 혹은 독자들에게 번역뉴스를 제공하는 [참고소식]의 매체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살펴보면, [참고소식]은 철저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문의 내러티브 뉴스에서 사용되는 기원문, 감탄문, 의문문 등 표현적 문장들을 독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보도에 따르면’ 혹은 ‘한국매체들은’ 등의 뉴스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본문의 표현적 텍스트를 감정이 배제된 중성적 표현으로 변형시켜 뉴스로서의 특성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문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내러티브 뉴스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로 변형되었다.

[참고소식]에서는 내러티브 뉴스 번역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현재 내러티브 뉴스 형태는 중국매체, 특히 [참고소식]에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텍스트라고 하겠다. 다만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사에 대한 주목은 있으며, 인물의 내러티브형태를 유지하면서 보도문임을 분명히 하는 형태로 텍

42) 안수찬, 위의 글, 18쪽.

43) 周围红, 张凤辉, 위의 논문, 76쪽.

44) 박재영·이완수, 위의 논문, 2008.에서 제시한 역피라미드의 객관성 반영의 역사를 참조.

트를 변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인물들이 중국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들과 연계되어 있으나, 향후 중국매체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내러티브 뉴스의 번역을 예상할 수는 있다.

5. 결론

본 연구가 진행된 2017년 상반기는 사드 문제 이후 번역되는 뉴스의 경향적 변화가 있었다. 번역 보도하는 한국뉴스의 절대적인 보도량에는 변화가 있지는 않으나, 보도하는 한국뉴스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그리고 사드 관련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사드 관련해서는 중국 관광객 감소 혹은 산업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최순실 관련보도 역시 꾸준히 정치, 외교적 사안들이 집중 번역되었다. 동시에 한류와 문화, 경제 및 사회일반 등 상대적으로 내러티브 뉴스가 많은 분야의 기사에 대한 번역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전과 달리 번역뉴스 분야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참고소식]의 한국뉴스에 대한 '다양성 번역'의 후퇴로 인해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뉴스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얻지는 못했지만, 추후 연구에 참고할 몇 가지 탐색적 사항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매체들은 한국 원문뉴스에 제시된 내러티브형의 헤드라인 표현을 객관적이고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있었다. 특히 역피라미드 구조의 핵심으로 원문의 내러티브 기사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리드(lead)를 별도로 추가함으로써 원문의 내러티브를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경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내러티브 번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해 한국매체의 보도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인물중심으로 서술되는 원문구조를 사건중심으로 변경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 방식의 글쓰기를 중국매체 특히 [참고소식]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성을 표상한 역피라미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역피라미드 뉴스가 편집과정을 용이하게 해주고, 독자들의 이해에 들이는 시간

을 줄인다는 인지적 경제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지만, 그 경제성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한계를 노출하면서 내러티브형 뉴스가 늘어나고 이것이 번역에는 정보전달이 아닌 표현적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논지이다. 본 연구가 충분한 사례를 제공하지는 못했으나, 중국에서 내러티브 뉴스가 번역되는 양상에 대한 탐색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으며, 향후 보다 장기간에 걸친 풍부한 사례를 수집하여 중국매체의 내러티브 뉴스 번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강수정, 「방송뉴스 번역양상에 관한연구」, 『통번역학연구』 17(1), 2013.
 강수정, 「중국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5권, 2011.
 고영철,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 콘텐츠의 구성방식 비교분석」, 『언론과학연구』 15(1), 2015.
 광민영, 『기사스타일이 독자의 흥미, 신뢰도, 기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경희, 「뉴스소비의 변화와 뉴스의 진화」, 『언론정보연구』 49(2), 2012.
 김우룡, 『텔레비전 뉴스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박재영·이완수, 「역피라미드 구조와 내러티브 스타일에 대한 기자와 에디터의 인식」, 『한국언론학보』 52(6), 2008.
 안수찬, 「대중과 교감하는 길, 내러티브」, 『방송기자』, 2014.
 안수찬, 『스트레이트를 넘어 내러티브로: 한국형 이야기 기사 쓰기』, 한국언론재단, 2007.
 연합뉴스, 「뉴스소비 SNS 확대」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이은숙, 「전문번역전략에 대한 연구-TV뉴스 번역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0, 2011.
 이재경·김학희, 『방송보도』. 서울, 나무와 숲, 2008.
 이해균, 『국가 간의 국제뉴스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년.
 한국언론재단,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6』, 서울, 한국언론재단, 2016.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노승엽 외 역, 『글로벌 뉴스와 번역』, 서울, 도

서출판 동인, 2009년.

John W. Creswell,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5.

Katharina Reiss & Hans J. Vermeer, 정혜연 외 옮김, 『일반통번역이론의 기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賈文波, 「文本類型的翻譯策略導向—異化, 歸化討論後的思考」, 『上海科技翻譯』, 2004年 第3期.

呂宁, 「新聞編譯中的“選擇”—以《參考消息》的一篇報道為例」, 『新聞記者』 2006(10).

刘其中, 『新闻翻译教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王士宇, 「寫新聞與講故事」, 『新聞與寫作』, 2009(10).

張偉, 「國際新聞編譯策略的實際應用」, 『今日南國』, 2009.

周園紅, 張鳳輝, 「電視新聞語言探析」, 『新聞知識』, 2009(3).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News Translation of Chinese Media

Kang, Su-Jung

The news text, which is the result of the news action, has used the inverted pyramid style for a long time. The inverted pyramid style symbolized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news. Recently, however, there is an indication that the inverted pyramid style lowers consumers "reading interest" as news consumption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SNS increases. As an alternative to this, there is a discussion on narrative style news text in journalism.

In this study, I have grasped how news text of recent narrative style is translated in Chinese media. As a result, Chinese media reconstructed news text of narrative style of Korean media in reverse pyramid style.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is the addition of 'lead', a feature of the inverted pyramid style that disappeared in narrative style news texts. The Chinese media have reconstructed the Korean news in an inverted pyramid style that provides a summary of the text

by making 'lead' and informs the contents of the text in advance. The headlines were changed to Chinese style, and the articles expressed literally in the text were deleted.

The Chinese media have changed all text structures that seem to violate the objectivity of the news symbolized by the inverted pyramid style.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narrative news translation and will be the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in the future.

Key Words: Chinese news, News Translation, Edited Translation, Narrative news, CANKAOXIAOXI(Reference News)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